2011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 출제의도

(2010년 10월 2일 시행)

I. 2011학년도 연세대학교 논술 입학시험의 기본 방향

- 본 대학에서는 2006년부터 학과목의 지식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다면사고형 논술 문제 유형을 개발하고, 이를 꾸준히 향상시켜 입학시험에 활용하고 있음.
- 다면사고형 논술 시험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각 교과목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면서 얻게 되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능력을 측정하며, 이를 통해 고등학교 교육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함.
- 본 대학은 이미 2011년도 논술 시험 문제의 기본 틀을 예시 문제로 제시한 바 있으며,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험생이나 지도 교사들에게 그 취지와 형태를 충분하게 알려 수험생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011년도 논술 시험은 인문계, 사회계, 자연계로 나누어 출제하였음. 2010년도 논술 시험에 비해 시험 문제 수, 시험 시간, 답안 분량을 줄이고, 난이도는 전년도의 수준을 유지하여 학생들의 논술 시험 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 하였음.
- 2011년도 논술 시험 문제는 고등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나 개념을 바탕으로 하였고, 또한 학생들이 평소 생활 속에서도 직간접 경험을 통해 익숙하게 경험하거나 생각해본 주제들을 활용하였음.
- 논술 시험 문제는 주어진 제시문에 대한 독해력과 분석력,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 사고와 논증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음. 각 계열별 논술 시험 문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① 인문계열 : 죽음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이를 통한 삶의 성찰을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이해

② 사회계열 : 사회 현상에 대한 다양한 분석 방법

③ 자연계열 : 수학적 개념, 수리적 사고력과 논증력 측정. 물리·생물·화학·지구과학 지식의 통합적 이해와 활용

Ⅱ. 인문계열

[출제 의도]

1. 인간 및 동물이 '죽음'에 대처하는 방식을 다양한 관점을 비교, 분석하는 제시문을 통해 수험생들이 삶과 죽음이라는 인간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성찰하는 역량을 평가하려고 한다.

2. '죽음'에 대처하는 태도에 대한 다양한 관찰 결과와 성찰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문 분석을 통해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3. '죽음'과 '사체의 매장'을 이해하는 상이한 관점을 이용하여 동일한 경험적 분석 자료, 즉 배설물에 대한 관념에 노출되는 경우 '죽음'에 대한 연상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심리실험의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추론 능력과 창의적 사고 능력을 평가한다.

4. 여러 분야의 텍스트와 자연 관찰 결과, 그리고 심리 실험을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다양한 학문의 측면에서 논의하는 능력을 검증한다.

5.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문학이나 윤리 교과목에서 습득한 다양한 사유와 개념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해석하고 답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하였다.

[제시문 분석]

1. 제시문 〈가〉

제시문 〈가〉는 가다머(Hans-Georg Gadamer)의 『과학시대의 이성』(Vernunft im Zeitalter der Wissenschaft, 1976)의 일부를 발췌, 편집한 것이다. 여기서 인간이 죽음에 대해 지니는 태도가 동물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가다머는 죽음에 대해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의 특수성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특수성은 죽은 자를 매장하는 풍습에 잘 드러난다. 매장 풍속은 죽음을 기피하거나 무시하는 생각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고 죽은 자를 산 자와 함께 두려는 생각에 기인한다. 이런 죽음에 대한 태도는 자연적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동물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인간만의 특수성이다.

2. 제시문 〈나〉

제시문 〈나〉는 영장류학자인 다이앤 포시(Dian Fossey)가 아프리카 르완다의 산악고릴라에 대한 관찰 결과를 보고한 『안개 속의 고릴라』(*Gorillas in the Mist*, 1983)의 일부이다. 이 글에서는 죽은 동료 고릴라에 대한 다른 고릴라들의 다양한 행동이 묘사되고 있는데, 특히 죽은 고릴라에게 반복적으로 거친 폭력을 가하는 행태가 자세히 묘사되고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고릴라들이 죽은 고릴라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며, 죽은 고릴라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어린 고릴라들은 지속적으로 큰 관심을 가졌다. 관찰자는 고릴라들의 이러한 행동을 죽은 고릴라에게서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3. 제시문 〈다〉

제시문 〈다〉는 그리스 철학자 필로데모스가 『죽음에 관하여』에 기록한 데모크리토스의 말을 읽기 쉽게 편집한 것이다. 건강 상태나 미추(美醜)의 여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대전제 하에서 사람들이 죽음을 직면하지 않고 무덤에 집착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죽음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이는 삶에 대한 애착 때문이고, "이 애착은 삶의 즐거움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 공포를 외면하고 있다가 "죽음의 모습"(부패하는 것, 시체의 악취나 추악한 모습 등)을 접하고 갑자기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당황하고 발버둥 친다.

4. 제시문 〈라〉

제시문 〈라〉는 둥켈(Curtis S. Dunkel)의 "The Association between Thoughts of Defecation and Thoughts of Death"(*Death Studies* Vol. 33 (2009): pp. 356-371)이 실행한 배설물과 죽음에 대한 개념의 심리적 연관성을 실험한 연구결과의 일부를 발췌·수정한 것이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배설물(똥)과 연관된 단어를 생각하도록 유도된 집단(실험집단)과 연관 없는 단어를 생각하도록 유도된 집단(통제집단)으로 나누고, 두 집단이 죽음과 연관된 단어를 얼마나 많이 연상하는지를 비교하였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배설과 관련된 행위를 바로 했거나 배설의 장소에 있던 사람들, 즉 화장실에서 바로 나온 사람들(실험집단)과 화장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통제집단)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두 실험 모두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죽음에 대한 연상을 덜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다양한 방식으로 배설물이라는 개념에 노출시켰을 때, 배설과 연관된 생각이나 경험은 죽음에 대한 연상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 설명]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에 나타난 죽음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문제 분석]

이 문제는 제시문을 통해 '죽음' 에 대처하는 다양한 태도와 성찰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능력을 측정하려고 한다. '죽음' 은 모든 생물체에게 필연적인 것인데, 죽음에 대처하는 생물체들의 행동이나 관습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위의 제시문에 나타나있듯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인간과 동물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인간들 사이에도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난다. 때로는 죽음을 초월하거나 삶의 일부로 영속화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때로는 죽음을 부정하려고 하며, 또한 때로는 죽음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려는 반응을 위의 제시문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문제는 죽음에 직면한 인간 및 동물의 이러한 행동 방식과 그 심리적 메커니즘에 대한 복합적인 성찰과 관찰의 결과를 논리적으로 비교 · 분석하기를 요구한다.

[문제 2] 제시문 〈가〉, 〈다〉 각각의 입장에 근거하여 제시문 〈라〉의 실험 결과를 해석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1,000자 안팎, 50점)

[문제 분석]

제시문 〈라〉의 실험 1, 2의 공통된 결과는 배설물(똥)과 관련된 말이나 상황에 노출되면 죽음에 대한 연상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가령 (1) 제시문 〈가〉, 즉 인간은 죽음을 부패와 소멸로부터 분리시켜 삶과 연속시켜 신성화(초월)하려 한다는 입장에 주목하여 해석해 볼 수 있고, (2) 제시문 〈다〉, 즉 부패와 악취에 대한 회피가 죽음에 대한 공포와 거부를 반영한다는 입장에 주목하여 해석해 볼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이러한 각각의 해석을 제시한 후 한 쪽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른 쪽의 해석을 지지하거나, 둘 모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수험생 본인의 종합적인 혹은 대안적인 해석을 제시하기를 요구한다.

Ⅱ. 사회계열

[출제의도]

1. 본 문제는 과학적 탐구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과 사회조사의 연구 설계 및 결과를 보여주는 제시문 분석을 통해 학생들이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평가해보려고 한다.

2. 과학의 고전적인 인과모델에 대한 비판적 인식론이 철학, 역사학, 계산과학에서 각각 어떤 형식으로 제기되고 있는지 제시문 비교를 통해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3.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 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구체적인 사례로 삼아, 흔히 접할 수 있는 사회조사의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한계와 보완가능성을 창의적으로 사고해보도록 한다. 여러 변인들 간의 관계(상관 관계, 인과 관계)를 가정하고 검증하는 논리적 절차에 대해 고찰하고, 나아가 사회현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연구방안을 제시문과의 관련 속에서 모색해보도록 한다.

4. 인문사회 분야의 고전과 최신 텍스트, 사회조사를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검증한다.

5.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반영하여 고등학교 정규과정(사회문화, 윤리 등)에서 다루는 '인과관계', '상관관계', '회의주의' 등의 주제가 반영되도록 제시문과 문제를 구성하였다.

[제시문 분석]

1. 제시문 〈가〉

제시문 〈가〉는 흄(David Hume)의 『인간의 이해력에 관한 탐구』(*An Enquir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1777)의 일부를 발췌·편집한 것이다. 여기서 흄은 '동일한 원인에서 같은 결과가 생기게 되며 그런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필연적 연관성을 갖는다'고 보는 전통적인 인과론을 비판한다. 우리들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두 사건이 앞뒤로 연달아 일어난다는 사실 뿐이라는 것이 흄의 요지다. 그와 같은 사건들의 연속을 지속적으로 여러 번 경험할 때, 우리는 뒤의 사건을 관찰하자마자 그것을 앞의 사건과 연결지어보고 후자를 전자의 원인일 것이라고 믿는다. 이처럼 인과관계는 사물에 내재한 것이 아니라 사고의 습관에 불과한 것이다.

2. 제시문 〈나〉

제시문 〈나〉는 크리스 앤더슨(Chris Anderson)의 「이론의 종말」("The End of Theory: The Data Deluge Makes the Scientific Method Obsolete," Wired Magazine, 2008)에서 일부를 발췌·편집한 것이다. 앤더슨은 구글 시대의 엄청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설을 세우고 연구모델을 구축하여 실험하는 과학적 방식은 구시대의 것이라고 말한다. 기존 연구모델이 찾고자 하는 것은 인과관계인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에 대한 배경지식이 필요하고 이런 저런 가설을 세워서 검증해봐야 한다. 그런데 천문학적인 양의 데이터 앞에서는 그런 기존의 과학적 모델은 경험적 현실을 충분히 다룰 수 없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데이터의 크기와 통계 알고리듬이 기존의 과학모델 없이도 데이터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알아내게 해준다는 점이다. 구글처럼, 배경지식이나 가설 없이도 통계 알고리듬으로 분석된 데이터의 상관관계는 과학이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패턴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다.

3. 제시문 〈다〉

제시문 〈다〉는 벤느(Paul Veyne)의 『역사를 어떻게 쓰는가』(*Comment on écrit l'histoire*, 1971)에서 발췌, 편집한 것이다. 이 글에는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단일한 원인에 환원시켜 설명하려는 방식에 대한 회의가 담겨있다. 우리는 현세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때로는 그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다양한 요인들의 결과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가는 어떤 사건의 원인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 보일 때조차, 그 원인과 사건 사이를 매개하거나 맥락화하는 여러 다른 변인들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이용 가능한 사료가 언제나 불충분할 수밖에 없기에, 신중한 태도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4. 제시문 〈라〉

제시문 〈라〉는 잭슨(James Jackson)과 윌리엄스(David Williams)가 수행한 "Detroit Area Study: Social Influence on Health, Stress, Racism, and Health Protective Resources" (2004)의 결과 중 일부를 문제 의도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이 제시문의 표들은 교육 수준과 건강 간의 관계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제3의 변인인 소득수준을 고려할 것을 주장하고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을 탐색함에 있어, 교육 수준과 건강 상태 두 가지 변인간의 단순 관계가 소득 수준이라는 맥락에 따라 어떠한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제시문 〈라〉의 핵심이다. 소득 수준이라는 변수를 고려할 때, 소득 수준이 '중'과 '하'인 집단에서는 교육 수준과 건강 상태가 정적(positive) 관계를 가짐에 비해, 소득 수준 '상' 집단에서는 대학 교육 이상의 집단에서만 건강상태가 '상'과 '하'로 양극화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문제 설명]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는 과학적 탐구에 대한 여러 관점을 나타낸다. 이 관점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하시오.

[문제 분석]

이 문제는 과학적 탐구 방법으로서 인과론적 모델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담은 제시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 제시문은 고전적인 인과론을 비판한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이 있지만, 과학적 탐구방식 자체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태도를 드러낸다. 가령, 제시문 〈가〉는 원인과 결과라는 관념이 경험적 관찰의 습관에 따른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면서, 인과관계 자체를 부정한다. 제시문 〈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생산, 처리하게 된 시대에 인과모델을 설정하고 검증하는 식의 고전적 접근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상관관계만으로도 충분히 새로운 발견과 분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다〉는 단선적 인과모델은 위험하며 우리는 언제나 무수한 제3의 변인들의 존재와 역할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는 세 제시문의 기본 논지를 전체적인 공통점의 맥락 안에서 파악하는 동시에, 그 구체적인 방향과 대안에 있어서의 차이점들을 논리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문제 2] 제시문 〈라〉의 두 주장에 근거하여 [표 1], [표 2]에 나타난 중요한 점들을 기술하고, 제시문 〈나〉, 〈다〉의 관점 중 하나를 택하여 연구 전체(주장 및 결과)를 평가하시오.(1,000자 안팎, 50점)

[문제 분석]

이 문제는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 건강 간 관계에 대한 사회조사의 결과를 해석하고, 이러한 연구 전체가 어떠한 의의와 한계를 지니는지 제시문 〈나〉와 〈다〉의 인식론적 관점에서 평가해볼 것을 요구한다. 먼저 수험생은 사회 현상을 이해함에 있어 다양한 변인을 파악하고, 맥락에 따라 변인 간 관계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나〉의 경우, 천문학적인 데이터 량의 시대에 인과관계의 모델보다는 상관관계가 중요함을 주장하는 반면, 제시문 〈다〉의 경우, 단일한 인과관계의 모델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제 3의 변인의 존재 및 역할에 주목한다. 수험생은 이러한 제시문 가운데 하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사회 현상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제시해야 한다.

두 표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나 다음과 같은 예시를 참고할 수 있다.

[표 1]

▷ 연구 집단(총 표본수 1,134)에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 상태가 좋은 전반적 정적(positive)* 관계를 가짐.

▷ 대학 이상 교육수준 집단에서는 다른 패턴, 즉 건강 상태 '하'가 고졸 집단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준다.

[표 2]

▷ 소득 수준이 '중'과 '하'인 집단에서는 교육 수준과 건강 상태가 정적 관계를 가짐

▷ 이에 비해 소득 수준 '상' 집단에서는 [표1]에 나타난 패턴이 더욱 분명히 드러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음.

▷ 그러므로 교육 수준과 건강 상태의 관계를 파악함에 있어, 소득 수준이라는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교육 수준과 건강 상태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